



이광희 베드로 신부 | 해외선교(프랑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시편 128, 1)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이른 죽음은 부모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아파하며 살아간다는 말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본당 자매님 한 분의 아기(가브리엘)가 태어나자마자 하느님 품에 안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당의 모든 신부들과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했고, 남은 가족들은 서로 안아 주고 위로해 주며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공동체가 있기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성탄 팔일 축제 내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나자렛 성가정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 모범을 본받아 신앙 안에서 화목하게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가기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성가정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가정을 살펴봅시다. 이 가정은 좋은 것으로만 가득하다는 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상상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정은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촌 동네의 목수 집안이었기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머나먼 타향살이로 힘겨운 생활을 해

야 했던 난민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치욕적인 십자가상의 죽음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칼에 찢리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 성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 생활이 어렵고 힘겨웠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가정은 가난과 어려움, 고통 등 불행의 요소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다지도 세속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가정을 왜 성가정이라 부르면서 이 가정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가정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순종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가정의 가장이 되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아들의 잉태 소식에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강생(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심)과 십자가상의 죽음을 순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가정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충실히 걸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이 성가정을 본받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동정과 호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고 사랑하며, 평화 안에서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풍수원성당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루카 2,52)**

예수님은 나이에 비례해서 하느님의 은총도 충만해졌습니다. 그 은총의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있었지만, 성장하시면서 더욱 자라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가정 안에는 성령께서도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성가정에 충만한 은총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완선 바오로 | 가톨릭사진가회

